

---

## 미스 베네수엘라, 쇠락하는 미모

세사르 바티스·존 린다르테

세사르 바티스: 포데르페디아 베네수엘라(Poderopedia Venezuela)의 편집인

존 린다르테: 포데르페디아 베네수엘라(Poderopedia Venezuela)의 편집인

---

원제와 출처: César Batiz and Jhon Lindarte, “Miss Venezuela, la cara bonita de la decadencia”, en *Nueva Sociedad*, No. 255, enero-febrero de 2015, pp.145-153.

핵심어: 자기검열, 불확실성, 미스 베네수엘라, 우고 차베스, 모니카 스페아르

모니카 스페아르(Mónica Spear)는 죽어서도 아름다웠다. 2014년 1월 6일 푸에르토 카베요에서 발렌시아로 이어지는 고속도로의 캄부르 구역, 어둠 속에서 발사된 두 발의 총알은, 미스 베네수엘라 선발대회의 의상처럼 성공이라는 구름을 타고 떠오르던 삶을 사라지게 했다. 스페아르의 삶은 카라카스 폴리에드로 회관에서 2004년 9월 미스 베네수엘라로 당선된 그때부터 꽃피기 시작했다.<sup>1)</sup> 당시 TV 방송 연기자이기도 했던 스페아르는 세 시간 반 동안 숨 막히는 긴장 속에 경쟁을 마친 끝에 처음으로 여왕의 자리에 등극했지만, 마치 장례식장에 있는 듯이

1) María Isoliect Iglesias y Deivis Ramírez Miranda, *Capítulo final. El homicidio de Mónica Spear*, Ediciones b, Caracas, 2014.

가벼운 미소만을 지었다. 대회 지정곡인 「오늘처럼 아름다운 밤에」처럼 희열을 폭발시킬 만한 무대는 마련되지 않았다.

스페아르는 그 자리에서 미모를 앗아간 죽음을 맞이했다. 옆에는 전 남편인 토마스 헨리 베리가 쓰러져 있었다. 다리에 총상을 입은 채 겨우 살아남은 그들의 딸 마야가 “우리 부모님이 죽어가고 있어요”라고 웅얼거렸다. 어둠이 내릴 무렵 차는 사고가 난 채 버려져 있었고, 범인들은 총을 난사하며 산을 빠져나갔다.

그렇게 스페아르와 베리는 2014년 첫 살인 희생자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2013년에는 전국적으로 2만 4천 건이라는 기록적인 선례를 남겼다. 그러나 스페아르는 혈통이 아니라 유전자로 왕관이 분배되는 나라에서, 살인과 치안불안이라는 화염에 처음으로 희생된 미스 베네수엘라, 미의 여왕이 되었다. 베네수엘라 폭력연구소에 따르면, 1998년에서 2013년까지 205,096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런 일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들의 국가’에서 일어난다. 1952년 이래 62명의 미의 여왕이 탄생했는데, 2013년 머리에 왕관을 쓴 마리아 가브리엘라 이슬레르를 포함하여 7명이 미스 유니버스가 되었다. 미스 월드와 미스 인터내셔널은 각각 6명이고, 미스 어스도 2명이나 된다. 국내 우승자가 국제 미인대회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인지 1998년 중반에는 미스 유니버스인 이레네 사에스(Irene Sáez)가 대통령선거 여론조사에서 수위를 달렸다. 결국 승리는 우고 차베스가 거두었다.

## 궁전 없는 여왕

1998년 12월 6일, 차베스는 천백만을 약간 상회하는 투표자 중에서 3,673,685 표를 얻었다. 2위를 차지한 엔리케 살라스 로메르보다 1백만 표를 더 얻었고,

1981년 미스 유니버스인 사에스보다는 350만 표를 더 얻었다. 그런 후 이 국가는 변화하기 시작했다. 국민투표, 제헌의회, 새로운 권력, 거듭되는 선거, 차베스의 3연속 승리, 정치경제의 재건설, 심지어 재직 중인 대통령의 별세까지 많은 변화가 지난 16년 동안 일어났다. 그럼에도 이 기간 중 미스 베네수엘라 대회에서 왕관을 썼던 수상자 중 한 명만이, 그것도 단 한 번 공식적으로 행정부 수반의 집무처인 미라플로레스 궁전을 방문했다.

2012년 1월의 일이었다. 암과 사투를 벌이던 차베스 대통령은 1884년 이탈리아 백작 주세페 오르시가 설계한 저택에서 이비안 사르코스를 맞았다. 그때 베네수엘라 국민은 차베스의 병세에 관해 자세히 알지 못했다. 차베스처럼 활기에 찬 사르코스는 수도 카라카스에서 행상을 하다가 2011년 미스 베네수엘라가 되었고, 이해 12월에 미스 월드에 뽑혔다. 사르코스는 별로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차베스 대통령을 돕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1999년까지는 국제대회 우승자가 미라플로레스 궁전을 방문하는 것이 전통이었다. 적어도 대통령은 축하메시지를 보냈는데, 1955년 미스 월드 우승자 수사나 두이흠(Susana Duijm)이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 제1회 미스 베네수엘라 선발 대회는 1952년 판아메리칸 에어웨이 항공사가 주최하였으며, 그 목적은 우승자를 미스 유니버스에 내보내는 것이었다. 당시에는 마르코스 페레스 히메네스 대통령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소피아 실바가 제1대 미스 베네수엘라로 선정되었다. 1954년 대회는 정치적 문제와 광고주 부족으로 중단되었다. 1955년 재개되었을 때, 베네수엘라 가톨릭교회는 불만을 토로했다. 이해 5월 『라 렐리히온』이라는 일간지에 카라카스의 주교 루카스 기에르모 카스티요는 이렇게 말했다. “미스 유니버스에 내보낸다는 명분으로 진행되는 이 대회는 천박하고 과도한 노출로 인하여 선량한 가톨릭 신자들에게 극도의 혐오감을 불러일으킨다.”

1955년 7월 최종 심사에서 수사나 두이흠이 미스 베네수엘라로 선발되었고,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 참가하여 결선까지 올랐다. 두이흠은 3개월 후 미스 월드 조직위원의 초청을 받고 런던으로 건너가 미스 월드의 왕관을 차지했다. 이로써 두이흠은 베네수엘라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세계 미인 대회 여왕이 되었다. 두이흠이 신문기자 오를란도 수아레스에게 밝힌 바에 따르면, 당시 실권자인 페레스 히메네스는 수상 축하 전보를 보냈으며, 라스 팔마스 지역에 왕관 모양의 집까지 선물했다.<sup>2)</sup>

1958년 페레스 히메네스의 독재정권이 몰락한 후 일 년 동안은 미스 베네수엘라 선발대회가 열리지 않았다. 다시 한 번 정치경제적 문제로 타격을 입은 것이다. 1960년까지만 해도 베네수엘라는 석유수출로 수입이 증가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이후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유럽인이 건너왔고, 국내적으로는 시골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었다. 쿠바인으로 광고회사(Oppa)를 소유한 이그나시오 폰트 콜 덕분에 미인대회가 재개되었고 전문화되기 시작했다. ‘베네수엘라 미인 위원회’를 창설한 사람도 바로 폰트 콜이었다.

첫 대회 이후 15년간 수영복 심사는 심사위원들에게만 공개되었다. 1961년 『울티마스 노티시아스』라는 잡지에 비키니를 입은 참가자의 사진이 실렸는데, 사실은 루고라는 성의 사진작가가 사전 허락을 받지 않고 찍은 것이었다. 한편 카라카스에서는 이제 막 등장한 도시게릴라가 폭탄 테러를 감행했다. 1968년 폰트 콜은 시스네로스 그룹이 소유한 ‘베네비시온’이라는 TV방송국과 방영 계약을 체결했다. 그해 처음으로 수영복 심사가 텔레비전으로 방영되었다. 이때 처음으로 미스 베네수엘라와 동어의가 된 인물이 등장했는데, 그녀가 바로 오스멜 소우사였다.

2) “Recuerdos de otros tiempos”, en *El Universal*, 13/5/2005.

## 미의 차르

“너는 좀 쪼어”, “이 상태로는 못 나가”, “그 코 고쳐야 해” 이런 표현은 희망에 부풀어 미스 베네수엘라 조직위원회의 문을 두드리는 젊은 아가씨에게 오스멜 소우사가 던지는 말이라고 <http://www.poderopedia.org/ve/>에 나와 있다. 이 웹사이트는 사람, 회사, 조직 간에 존재하는 권력관계를 보여준다. 1945년 9월 26일 쿠바에서 출생한 소우사는 여왕을 만드는 권력을 거머쥐게 되었다. 일명 ‘미의 차르’(Tzar)라고 부르는 이 소우사가 국제적으로 유명한 미인 산업을 베네수엘라에 정착시킨 것이다.

‘우니비시온’이라는 인터넷서널 채널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소우사는 어린 시절 아양을 부리고 목소리가 가늘었기 때문에 가톨릭 신자인 부모는 소우사를 남자답게 만들려고 병원에 입원시켜 호르몬 치료를 받게 했다고 회고했다. 부모에게 배척당한 소우사는 베네수엘라로 이주하여 마라카이보에 정착했다. 그곳에서 가게 점포의 진열대를 정리하는 일을 하다가 카라카스로 이주한 후에는 동포인 폰트 콜의 디자이너로 취직했다. 그리고 1968년 23세가 되던 해부터 미스 베네수엘라 조직위원회에 참여하였다.

소우사의 첫 번째 성과는 성형시술을 받았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마리트사 사알레로가 1979년 미스 유니버스의 왕관을 쓰게 된 일이다. 이때는 폰트 콜이 이미 사망했고, 상속자들은 미스 베네수엘라 선발대회 개최권을 시스네로스 그룹에 매각한 후였다. 미인선발대회의 역사를 잘 아는 신문기자 디에고 몬탈도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미스 베네수엘라의 사회적·문화적 붐은 시스네로스 그룹 측에서 이 대회 개최권을 매입한 후에 생겨났다. 이 재단은 소우사를 미스 베네수엘라 조직위원회 위원장으

로 선임했다. 이 대회가 베네수엘라 사람들에게 아주 유명하고 중요한 행사가 된 이유는 모든 사회 계층을 하나로 묶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또 베네수엘라 사람은 환상을 좋아하는데, 미인이야말로 이런 환상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대상이기 때문이다.<sup>3)</sup>

## 엄마, 미인 대회에서 상 타고 싶어요

미스 베네수엘라 선발대회는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되었고, 가난하든 부자든 엄마와 딸은 미의 왕관을 열망했다. 이런 점을 잘 알고 있는, 카라카스 서쪽의 산 마르틴이라는 동네에 있는 모델 학교의 선생님 이리스 로드리게스는 무대 매너를 가르치기 위해 없는 돈이라도 마련하는 가정의 젊은 아가씨를 받아들인다. 제자 가운데 14세의 루스네이 로아도 이런 경우인데, 안티마노 동네의 퀸으로서 언젠가는 미스 베네수엘라 띠를 두르고 무대를 확보하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왕관을 쓰면 “부모님은 이 동네를 벗어날 수 있고, 나에게 준 것 이상으로 보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루스네이 로아는 말한다.

미인대회의 전문가에게 베네수엘라 언론이 붙인 미녀학자(missologo)라는 명칭을 마땅치 않게 여기는 몬탈도는 미스 베네수엘라 선발대회가 국민에게는 탈출구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아름다운 여성, 의상, 조명, 쇼를 보는 동안 힘든 생활을 잊는다. 잠시나마 설탕, 우유, 약품을 사기 위해 줄을 서야 한다는 생각이나 불안정한 치안 문제를 망

3) Entrevista con los autores, Caracas, 30/10/2014.

각하는 것이다. 미스 베네수엘라 선발대회는 잠깐이기는 하지만 개인적인 문제와 국가의 현실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는 효과적인 수단이다.<sup>4)</sup>

사회학자 레온시오 바리오스는 ‘미의 대제전’이 비즈니스라고 분석한다. “따라서 국가 경제 상황을 반영하며, 이는 검소하게 치르는 최종 심사가 증명한다”고 얘기한다. 실제로 예전에는 카라카스의 호텔이나 극장에서 최종 심사를 진행했지만, 지금은 베네비시온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진행한다. 바리오스는 미스 베네수엘라 선발대회가 국가의 상황을 은폐하기 위한 연막커튼이라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가장 아름다운 밤이라고 부르는 건 맞다. 왜냐하면 세 시간가량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기 때문이다. 그런다고 국가의 상황까지 관심 밖이 되는 것은 아니다”<sup>5)</sup>라고 주장한다.

## 자기 검열

2014년 미스 베네수엘라 선발대회에서 모니카 스페아르의 이름은 ‘자기검열’이라는 장치를 갖추고 이 대회를 준비한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진 듯 보였다. 선발대회 내내 2월에 살해된 2004년 미스 베네수엘라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었다. 시스네로스 그룹 소속의 미스 베네수엘라 조직위원회는 ‘베네비시온’ 채널을 소유하고 있다. 2004년 미국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차베스 대통령과

4) Entrevista con los autores, Caracas, 3/11/2014.

5) Entrevista con los autores, Caracas, 27/10/2014.

이 그룹 회장인 디에고 시스네로스의<sup>6)</sup> 회동을 주선한 이후, 방송국의 대정부 비판의 수위가 낮아졌다.

잡지 『세마나』가 보도한 위키리크스 정보에 따르면, 2010년 2월 카를로스 바르다사노, 안토이네타 멘도사 데 로페스(수감된 야당 정치 지도자 레오폴도 로페스의 어머니)와 루이스 에밀리오 고메스 고도이는 베네비시온의 회장실에서 당시 주미 베네수엘라 대사 패트릭 더디와 만나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고 한다. 베네수엘라의 심각한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뉴스 기사는 “두 가지 시각을 제시하고, 시청자가 판단하도록 하자.”<sup>7)</sup>

2014년 2월 26일, 즉 스페아르과 살해당하고 19개 지방에서 반대파가 항의 시위를 하던 중 처음으로 희생자가 발생한 후, 현 대통령인 니콜라스 마두로는 ‘평화정착 국민협의회’를 소집했다. 이때 국영방송에 출연한 바르다사노는 정치인과 사업가 청중 앞에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미디어를 활용하라”<sup>8)</sup>라고 강조했다.

## 미스 유니버스 대회의 왕관

평화정착 국민협의회는 베네수엘라 정부가 2월 7일 이후 돌아오른 길거리의 저항 열기를 낮출 수 있다는 계산에서 정치적으로 추진한 운동이다. 이 시기는 모니카 스페아르의 살해 소식과 이로 인한 분노가 치솟기 시작할 때였다.

6) 차베스는 디에고 시스네로스가 2002년 4월 쿠데타에 참여했다고 비난했다.

7) “Wikileaks de Venezuela: ¿Cómo ha sobrevivido Venevisión?”, en *Semana*, 21/6/2011.

8) Pedro Pablo Peñaloza, “Señalan que Conferencia de Paz no activa un diálogo real”, en *El Universal*, 28/2/2014.

2013년 12월 지방자치단체장에서는 335개 지방 가운데 카라카스와 알토 아푸레라는 두 대도시를 포함하여 240여 지방에서 여당이 승리한 후, 2014년 초까지 차베스파나 반대 진영은 힘을 다시 집결하고 있었다. 2013년 11월 마두로 대통령은 여당이 ‘경제 전쟁’이라고 호전적으로 명명한 정책을 실행하려고 수권법에 의거하여 특별조치를 발표하였다.

이 경제 전쟁의 첫 특별조치는, 구아리코 주의 대표인 2012년 미스 베네수엘라 마리아 가브리엘라 이슬레르가 미스 유니버스의 왕관을 받은 날에 실시되었다. 2013년 11월 8일 마두로 대통령은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다카의 체인점을 점령하여 “물건을 빼내서 정당한 가격에 판매하라”고 명령했다. 이후에 ‘다카 사태’(Dakazo)라는 이름이 붙은 이 명령은 다음 날인 9일 토요일에 카라보보 주의 발렌시아 시에서 다카 본부를 점거하라는 명령으로 이어졌다. 모스크바에서 이슬레르가 마스 유니버스 왕관을 머리에 쓰는 사이에 베네수엘라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

클로틸데 팔로미노는 다카 사태로 처음에 곤경을 치렀으나 나중에는 행운을 얻었다. 11월 8일 팔로미노는 카라카스의 다카 체인점을 나오다가 에페(Efe) 통신사에 사진이 찍혔고, 곧 ‘미스 다카’로 유명해졌다. 반대파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 ‘약탈녀’라고 비난을 퍼부었는데, 사실은 세일 중인 전자제품을 사러 나온 것이었다. 팔로미노는 디지털 미디어 콘트라폰토의 기자인 아이람 페르난데스에게 전후사정을 밝혔고, 베네수엘라 정부는 팔로미노에게 보상을 하고 집을 마련해 주었다. 콜롬비아 이민자인 팔로미노는 현재 그 집에서 혼자 살고 있다.<sup>9)</sup>

9) A. Fernández, “El recuerdo agrídulce de la mal llamada ‘saqueadora de Daka’”, en *Contrapunto*, 7/11/2014.

아무튼, 미스 유니버스로 뽑힌 이슬레르는 여느 수상자와는 달리, 뉴욕에 정착하여 일 년에 한 번 정도 공식으로 베네수엘라를 방문하여 여제(soberana)같은 대접을 받는다. 2014년 10월 베네수엘라로 돌아온 이슬레르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매장에 진열된 전자상품의 가격이 2013년 11월보다 5배 이상 상승했다는 것을 알았다. 베네수엘라에서 소비되는 우유의 80%를 차지하는 분말우유는 물론이고, 의약품, 기저귀, 유방확대수술에 사용하는 보형물까지 품귀현상을 빚었다. 2013년 국제미용성형수술협회에 따르면, 베네수엘라는 8만 5천 건의 인공유방삽입 수술을 한 국가였다.

소비재 부족 현상이 극심하여 매니큐어 지우는 데 사용하는 아세톤 같은 여성 미용 상품도 구하기 어려워지자 일반 가정에서 식초와 레몬을 섞어 만든 대용품이 시장에 등장했다. 카라카스 동쪽 페타레의 여러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위기에서 생겨난 이런 상품이 0.5리터 한 병에 3달러에 팔렸다.

상품 판매점, 특히 수입을 위해 달러로 공식 가격을 받는 전자제품과 식품 판매점은 정당한 가격을 붙여야 한다는 명령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는 목적이었다. 2013년 말 인플레이션이 56.2%에 달했는데,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것이었다. 그러나 2014년 지표는 이 수치를 능가했고, 경제전문가들은 2015년에는 100% 이상의 세 자리 수 인플레이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sup>10)</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카사태 덕분에 2013년 11월 마두로 대통령의 지지도는 상승했는데, 이는 2013년 4월 대통령에 취임한 후 실시한 지지도 조사에서 유일한 상승이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10) “Pronostican una inflación de tres dígitos para 2015”, en *El Nacional*, 29/10/2014.

## 죽음의 룰렛

스페아르 살인 사건으로 베네수엘라 정부는 비상이 걸렸다. 이 소식을 접한 마두로 대통령은 “스페아르의 죽음은 모두에게 충격이다”라고 말하고, 살인청부업자의 소행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장례 기간 중 마두로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장 회의를 소집하여 “더는 사회의 불안과 고통을 조장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하고 정부 자체가 문제라는 듯이 이렇게 물었다. “우리가 아직도 못한 일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어 “우리는 마치 죽음의 룰렛을 하고 것 같다”고<sup>11)</sup> 말했다.

2014년 2월 12일 카라카스의 도심 칸델라리아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는데, 차베스파 한 사람과 반정부파 한 사람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살해당한 것이다. 이해 2월부터 5월까지 차베스파와 반정부파 43명이 시위 도중 총상, 외상 등으로 사망했다.<sup>12)</sup> 체포된 사람은 3,238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베네수엘라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의 학생회장인 사이람 리바스가 있었다. 사이람 리바스는, 차베스파에 반대하는 좌파 정당 적기당(Partido Bandera Roja)의 청년 지도자였다. 132일 동안 수감되었고, 학생회 직책을 맡기 이전에는 모델이었으며, 미인 대회에도 참가하여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열린 미스 아메리카대륙 선발대회에서는 결선에 오르기도 하였다.

11) Vanessa Arenas, “Maduro: ‘¿Cómo hacemos para parar la matanza en Venezuela?’”, en *Últimas Noticias*, 8/1/2014.

12) 바실 다코스타(Bassil Dacosta)의 죽음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고. Unidad de Investigación de Últimas Noticias, “Uniformados y civiles dispararon en Candelaria el 12F”, en *Últimas Noticias*, 19/2/2014. <http://www.ultimasnoticias.com.ve/noticias/actualidad/investigacion/video---uniformados-y-civiles-dispararon-en-candel.aspx>

## 대회 대본에서 삭제

2014년 10월 10일 제62회 미스 베네수엘라 선발대회가 개최되었을 때, 스페아르 사건은 쇠락하는 베네수엘라의 신문 사회면에서는 이제 아득한 기억일 뿐이었다. 대통령선거 유세가 한창이던 2012년 8월 팔콘 주의 아무아이 정유공장이 폭발하여 48명의 목숨을 앗아갔을 때 차베스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기능이 멈춰서는 안 된다.” 2014년 10월 10일 스페아르의 이름은 대본에서 사라졌고, 마리아나 히메네스가 미스 베네수엘라 왕관을 차지했다. 이 두 사람은 10년이라는 차이를 두고 구아리코 주민을 대표하여 동일한 대회에서 동일한 결과를 거두었다.

대회가 마무리되고 비판을 받게 되자, ‘미의 차르’인 소우사는 스페아르 사건에 침묵한 것을 변명했다. “모니카 스페아르의 죽음은 우리에게 무척 가슴 아픈 사건인데, 화려하고 즐겁고 음악에 휩싸인 이 밤에는 애도할 적당한 순간이 없었다”라고 글로보비시온의 ‘부에나스 노체스’란 프로그램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마리아나 히메네스가 새로운 미스 베네수엘라가 왕관을 쓰자마자 전에 찍은 누드 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라왔다. 마리아나 히메네스는 그 사진이 에이즈와 청소년임신 반대 캠페인에 사용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기능이 멈춰서는 안 된다. 이 글을 쓰는 동안에 석유 1배럴이 70달러에 근접했고, 소비재 부족은 심각해졌으며, 국가가 항공회사에 40억 달러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는 탓에 국제편 항공권 판매는 제한되었다. 또 베네수엘라 국민 10명 중 6명은 치쿤구냐(chikunguña)와 같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 스페아르와 전 남편은 인구 10만 명당 54명이라는 베네수엘라 살인율 지표의 한 사례에 지나지 않는다.

[이은아 옮김]